

삼전·하이닉스 신고가 행진... “더 간다” vs “고점 경계”

삼전 28만원·하이닉 194만원 넘기도
D램·낸드플래시 가격 급등 영향
증권사들 목표주가 일제히 상향
메모리 가격 상승세 둔화 가능성도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2025년 8월에 삼성전자 주식만 5억원 가지고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20억원이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한 회계법인 소속 직장인 A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재미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을 전망하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다. 외국인인 셀 ‘반도체’에 나서고 있고, 반도체 고점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33% 오른 28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28만 8500원까지 치솟았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 역시 급등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 194만 9000원을 찍었다. ‘190만 닉스’를

뚫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188만원(11.51% 상승)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장밋빛 실적 전망이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4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D램과 낸드플래

시 가격이 전분기 대비 각각 50%, 45% 상승할 것으로 봤다.
주가가 치솟는 만큼 재미들의 고민도 커졌다. 이제 주식을 팔아야 할지, 더 보유해야 할지를 놓고 판단이 서지 않아서다.
해외 투자은행(IB)과 국내 증권사는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고 외친다. 한동

희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50만원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는 “메모리 재평가는 여전히 초입에 불과하다”라며 “주가 랠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 비율(P/E)은 각각 6.0배와 5.2배 수준이다. 한국 메모리에 대한 매수주체 확대를 감안하면 저평가 매력 부각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했다.
노무라증권은 4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93만원에서 234만원으로 높였다. 같은 날 JP모건 역시 목표주가를 15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렸다. 골드만삭스는 4월 24일 목표주가를 기존 13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3분기부터 범용 메모리의 가격 급등 흐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PC 및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가 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들의 메모

리 재고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기 시작해 올해 3분기부터는 범용 메모리의 가격은 전분기 대비 한자릿수 수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날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한단계 하향, 목표가와 현재 주가와의 괴리를 축소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투자 의견에는 낙관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0~2024년 국내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보고서 74만 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 의견, 목표주가, 이익예측치의 낙관적 편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2014년 이전에는 73% 수준이던 매수 및 적극 매수 비중이 2015년 이후 91%로 증가하는 등 낙관적 편향이 강화·고착화됐다”며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반도체 상승·월배당 다 잡는다”... 삼성운용 ETF 출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
코스피200 콜옵션 프리미엄 활용
연 9% 수준의 월 분배금 목표



(왼쪽부터)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박성철 ETF운용1팀장, 임태혁 ETF운용본부장(상무)이 11일 삼성자산운용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의 성장성과 안정적인 월배당 수익을 동시에 노리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에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주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코스피 200 위클리 콜옵션을 활용해 월말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구조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장주에 집중 투자하고,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 월말 분배금을 지급하는 ‘KODEX 반도체타겟위클리커버드콜ETF’를 12일 상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ETF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대표 반도체 지수인 ‘KRX 반도체’의 T

R 지수를 구성하는 반도체 주식에 100% 투자하면서, 이 중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자산의 절반인 약 50%를 넘게 집중 투자한다는 점이다. 반도체 대장주의 주가 상승 랠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전략이며, 이를 위해 패시

브 운용 방식을 채택해 개별 종목을 최대 3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박성철 삼성자산운용 ETF운용1팀장은 “인공지능(AI) 산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목 현상의 해결사가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라며 “대한민국 반

도체 산업을 상징하는 두 대장주와 시장의 핵심 종목들을 패시브 구조로의 설계를 통해 저비용으로 온전히 담아내고, 개별종목 옵션 대비 압도적 유동성을 지닌 코스피200 옵션을 활용해 안정적인 월배당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말했다.
KODEX 반도체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표주식에 100% 투자하면서, 타겟 월 분배금을 제공하기 위해 코스피 200 위클리 콜옵션을 30%만 고정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코스피200 위클리 콜옵션 고정 매도를 통해 받은 프리미엄을 활용해 연 9% 수준의 안정적인 타겟 월분배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프리미엄 수익은 반도체 주식에 자동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운용 “AI 승자는 생태계” 구글 중심 ETF 선택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구글의 인공지능(AI)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인다. 엔비디아 중심의 기존 AI 투자에서 벗어나 구글과 광통신 인프라 기업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구글 본체뿐 아니라 AI 시대 핵심 수혜 기업까지 한번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1일 공식 유튜브 채널 ‘스마트타이거’를 통해 웹세미나를 열고 오는 12일 상장하는 ‘TIGER 구글밸류체인 ETF’의 투자 전략을 공개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 본부장은 “구글은 자체 반도체인 TPU를 시작으로 트래이-랙 인프라, 광학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링, AI 서비스 플랫폼까지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빅테크 가운데 유일한 기업”이라며 “최신 AI 모델인 제미니 3.0 프로 역시 엔비디아 GPU 없이 100% 자체 TPU 인프라로 학습·추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칩 하나나 모델 하나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가진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ETF는 구글과 브로드컴을 합쳐 40% 이상 비중으로 담고, 루멘타-이노라이트·씨에나·마벨 등 광통신 및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삼성전자도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사로 약 3% 비중으로 편입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I 산업의 병목이 가속이 확보에서 데이터 연결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며 광통신 기술이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글의 AI 수익화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8%, 당기순이익은 81.2%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
/허정윤 기자

전쟁 변수에도 재미들 웃었다... 주식 투자자 80% 수익 실현

투자자 평균 수익액 848만원
삼전, 가장 많은 수익·손실 종목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영향에도 올해 1분기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은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은 11일 자사 고객중 지난 1분기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80%가 수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수익을 낸 투자자의 평균 수익액은 848만원이었고 손실을 본 고객의 평균 손실액은 496만원이었다.
월별로는 1월 평균 수익액이 692만원

으로 가장 컸고 2월 594만원, 3월 398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쟁 발발 이전(1, 2월)과 비교하면 전쟁이 시작한 후인 3월 수익액은 감소했다.
반면 손실액은 3월이 449만원으로 가장 컸고 1월 367만원, 2월 267만원 순이었다.
1분기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에게 수익과 손실을 내게 한 종목은 모두 삼성전자였다.
이 기간 삼성전자를 매도한 고객 중 수익을 낸 고객은 평균 714만원을 얻은 반면에 손실을 본 고객은 평균 173만원을 잃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고객에게 수

익을 안겨준 종목은 SK하이닉스(평균 594만원), 두산에너빌리티(206만원), 현대차(341만원), 한미반도체(254만원) 순이었다.
손실 경험 고객이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137만원), SK하이닉스(246만원), 두산에너빌리티(59만원), 한화솔루션(8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고객에게 수익을 안겨준 종목은 우리기술(평균 236만원)이었다. 에코프로(250만원), 휴렛로봇(140만원), 알테오젠(209만원), 제주반도체(104만원)가 그 뒤를 따랐다.

가장 많은 고객이 손실을 보게 한 종목은 휴렛로봇(70만원), 우리기술(57만원), 에코프로(104만원), 알테오젠(258만원), 현대무비스(90만원) 순이었다.
1분기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성별 수익을 보면 남성 평균 739만원, 여성은 386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 1873만원, 60대 111만원, 50대 732만원, 40대 398만원, 30대 221만원, 20대 143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익 실현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